

Devarim Ch. 26

Verse 1

“And it shall be, when you come into the land which YHWH your Elohim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and you possess it and dwell in it,”

PaRDeS

Peshat: Moshe looks ahead to the time when Yisrael will enter the land given by YHWH, take possession of it, and settle securely within it.

Remez: The sequence—**come, possess, dwell**—suggests that receiving YHWH’s promise is followed by responsibility. A gift must not merely be received; it must be faithfully inhabited and cultivated.

Drash: Yisrael’s relationship with the land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land is not ultimately their achievement. YHWH is “**giving**” it to them. Human labor and possession therefore exist within divine generosity.

Sod: The movement into the land reflects a deeper spiritual movement: promise becomes possession, and possession becomes dwelling. What YHWH gives must move from something known intellectually to something established within one's life.

Energetic Flow

YHWH Gives → Yisrael Enters → Yisrael Possesses → Yisrael Dwells → Gratitude and responsibility emerge

The verse begins not with human accomplishment but with **YHWH’s gift**. Everything that follows—entering, possessing, and dwelling—is a response to what He has already provided.

Meaning

“네 Elohim 야훼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페샤트: Moshe 는 Yisrael 이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될 때를 바라본다.

레메즈: 들어가고, 차지하고, 거주하는 순서는 야훼의 약속을 받는 것 뒤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선물은 단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거하며 가꾸어야 한다.

드라쉬: Yisrael 과 그 땅의 관계는 그 땅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은 야훼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고와 소유는 야훼의 은혜로운 베푸심 안에 존재한다.

소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은 더 깊은 영적 움직임을 보여 준다. 약속이 소유가 되고, 소유가 거주가 된다. 야훼께서 주시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야훼께서 주심 → Yisrael 이 들어감 → 차지함 → 거주함 → 감사와 책임이 나타남

이 구절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야훼의 선물**로 시작한다. 들어가고, 차지하고, 거주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먼저 베푸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

Devarim 26 begins at a significant moment. Yisrael is about to move from wandering to dwelling, from expectation to possession. Yet Moshe immediately reminds them that prosperity must never erase the memory of its Source. The land they will cultivate is the land “**YHWH your Elohim is giving you.**”

This prepares for the commandment of the **bikkurim**, the firstfruits, in the following verses. Before Yisrael enjoys the produce of the land as though it were simply theirs, they must learn to return the first portion to YHWH with thanksgiving.

Mussar

Do not allow possession to erase gratitude. The greater the blessing becomes, the easier it is to forget the One who gave it.

What begins as “**YHWH gave me this**” can gradually become “**I built this myself.**” Verse 1 guards the heart against that transformation.

Spiritual maturity means learning to **dwel gratefully inside the gifts of YHWH**—enjoying them fully while continually remembering their Source.

Devarim 26 장은 중요한 전환점에서 시작한다.

Yisrael 은 방랑에서 거주로, 기대에서 소유로 나아가려 한다. 그러나 Moshe 는 번영이 결코 그 근원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고 즉시 상기시킨다. 그들이 경작할 땅은 “**네 Elohim 야훼께서 네게 주시는**” 땅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구절의 **비쿠림(bikkurim)**, **첫 열매** 계명을 준비한다. Yisrael 이 그 땅의 소산을 단순히 자기 것처럼 누리기 전에, 먼저 첫 부분을 감사함으로 야훼께 돌려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소유가 감사를 지워 버리게 하지 말라. 축복이 커질수록 그것을 주신 분을 잊기 쉬워진다.

처음에는 ***“야훼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다가 점차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Verse 1 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경계하게 한다.

영적 성숙은 **야훼께서 주신 선물 안에서 감사하며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그 근원을 기억하는 것이다.

Verse 2

“that you shall take some of the first of all the fruits of the soil which you bring from your land that **YHWH your Elohim is giving you, and shall put it in a basket and go to the place where YHWH your Elohim chooses to make His Name dwell there.**”

PaRDeS

Peshat: After settling in the land, Yisrael is commanded to take the **firstfruits** (*bikkurim*, בכורים), place them in a basket, and bring them to the place chosen by YHWH for His Name.

“**네 Elohim 야훼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Elohim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페샤트: 그 땅에 정착한 후 Yisrael 은 **첫 열매(bikkurim, בכורים)**를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야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레메즈: 첫 것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풍성한 수확을 누리기 전에 Yisrael 은 먼저 야훼를 인정한다. 우리가 첫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마음속에서 무엇이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드라쉬: 비쿠림은 농사를 예배로 변화시킨다. 농부는 단순히 “내 밭이 이것을 생산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열매를 야훼께 가져감으로써 그는 ***“이 수확은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고백한다.

소드: 첫 열매 안에는 전체 수확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시작을 야훼께 드리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 두는 것이다.

야훼께서 땅을 주심 → 땅이 열매를 낳 → 첫 열매가 나타남 → Yisrael 이 그것을 구별함 → 광주리에 담음 → 야훼께서 택하신 곳으로 감 축복은 받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선물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예물이 되며, 예물이 예배가 된다.

비쿠림의 계명은 Yisrael 이 약속을 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위험은 고난 중에 야훼를 잊는 것만이 아니다. 번영 가운데서 그분을 잊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풍요의 첫

Remez: The **first** represents priority. Before enjoying the fullness of the harvest, Yisrael gives recognition to YHWH. What comes first reveals what occupies first place in the heart.

Drash: Bikkurim transforms agriculture into worship. The farmer does not merely say, “My field produced this.” By carrying the fruit to YHWH, he declares, “**This harvest exists because YHWH gave us the land.**”

Sod: The firstfruit contains the promise of the entire harvest. Offering the beginning to YHWH symbolically places everything that follows beneath His sovereignty.

Energetic Flow

YHWH Gives the Land → The Land Produces → Firstfruit Appears → Yisrael Separates It → Places It in a Basket → Goes to YHWH’s Chosen Place

The blessing does not terminate with the receiver. **Gift becomes fruit, fruit becomes offering, and offering becomes worship.**

Meaning

The commandment of bikkurim teaches Yisrael how to live after receiving the promise. The danger is not only forgetting YHWH during hardship; it is also forgetting Him during prosperity. Therefore, when the first evidence of abundance appears, Yisrael must deliberately remember where the abundance came from.

증거가 나타날 때 Yisrael 은 그 풍요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또한 농부가 ***“가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감사는 단지 내면의 감정이 아니다. 열매를 선택하고, 광주리에 담고, 가지고 가서 드려야 한다. 성경적 감사는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Notice also that the farmer must “**go.**” Gratitude is not merely an inward feeling. The fruit is selected, placed in a basket, carried, and presented. Biblical gratitude becomes visible through deliberate action.

Mussar

Give YHWH the first, not merely what remains. Bikkurim teaches that gratitude should come before consumption, not after we have satisfied ourselves.

When something good begins to appear—a harvest, an opportunity, an accomplishment—our first instinct should be remembrance: “**YHWH is the Source.**”

The firstfruit tests the heart. It asks whether we see blessing primarily as something to possess or as something that first leads us back to the Giver.

야훼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라. 비쿠림은 우리가 먼저 자신을 만족시킨 후가 아니라 누리기 전에 감사해야 함을 가르친다.

좋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수확이든, 기회이든, 성취이든—우리의 첫 반응은 기억이어야 한다. “**야훼께서 그 근원이시다.**”

첫 열매는 마음을 시험한다. 축복을 단지 소유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먼저 그것을 주신 분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Verse 3

“**And you shall come to the one who is kohen in those days and say to him, ‘I shall declare today to YHWH your Elohim that I have come to the land which YHWH swore to our fathers to give us.’**”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Elohim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PaRDeS

Peshat: The person bringing the firstfruits does more than present produce. He verbally declares before the kohen that YHWH has fulfilled the promise made to the fathers.

페샤트: 첫 열매를 가져오는 사람은 단순히 소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제사장 앞에서 야훼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말로 선언한다.

Remez: “I have come” transforms an ancient promise into personal testimony. What YHWH promised generations earlier has now become the worshiper’s own experience.

Drash: Faith remembers history. The farmer must recognize that his present blessing belongs to a covenantal story that began long before him.

Sod: The declaration joins past, present, and promise together: **YHWH swore → the fathers believed → the descendants entered → the promise became reality.**

Energetic Flow

Promise → Generations of Waiting → Arrival → Declaration → Gratitude

The worshiper does not merely possess the land; he **testifies that YHWH kept His word.**

Meaning

Bikkurim turns personal prosperity into covenant testimony. The farmer standing with his basket is living evidence that the promise given to the fathers was not forgotten.

His confession begins not with **“Look what I produced,”** but with **“I have come to the land YHWH promised.”**

Mussar

Learn to identify the fulfillment of YHWH’s faithfulness in your life. Blessings become spiritually meaningful when they produce remembrance and thanksgiving.

레메즈: ***“내가 이르렀나이다”***라는 말은 오래된 약속을 개인적인 간증으로 변화시킨다. 여러 세대 전에 야훼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예배자의 실제 경험이 되었다.

드라쉬: 믿음은 역사를 기억한다. 농부는 자신이 현재 누리는 축복이 자신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언약의 이야기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소드: 이 선언은 과거와 현재와 약속을 하나로 연결한다. **야훼께서 맹세하심 → 조상들이 믿음 → 후손들이 들어감 → 약속이 현실이 됨.**

약속 → 여러 세대의 기다림 → 도착 → 선언 → 감사

예배자는 단순히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음을 증언한다.**

비쿠림은 개인의 번영을 언약의 증언으로 변화시킨다. 광주리를 들고 서 있는 농부 자신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잊히지 않았다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그의 고백은 ***“내가 무엇을 생산했는지 보라”***로 시작하지 않고 ***“야훼께서 약속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다”***로 시작한다.

삶 속에서 야훼의 신실하심이 성취된 흔적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라. 축복이 기억과 감사를 낳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의미 있게 된다.

“And the kohen shall take the basket from your hand and place it before the slaughter-place of YHWH your Elohim.”

PaRDeS

Peshat: The kohen receives the basket of firstfruits and places it before the altar of YHWH.

Remez: What had been “in your hand” is now placed before YHWH. The movement symbolizes surrender of ownership.

Drash: True thanksgiving includes release. The worshiper acknowledges that what he holds ultimately originates from YHWH.

Sod: The basket represents human labor filled with divine blessing. When placed before YHWH, ordinary agricultural work becomes sacred testimony.

Energetic Flow

Your Hand → Kohen → Altar → YHWH

What YHWH first placed into human hands is consciously returned before Him.

Meaning

The physical movement of the basket teaches a spiritual truth: gratitude requires more than words. Something produced through human labor is deliberately placed before YHWH.

Mussar

Ask not only, “What has YHWH placed in my hand?” but also, “How can what is in my hand honor Him?”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Elohim 야훼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페샤트: 제사장은 첫 열매가 담긴 광주리를 받아 야훼의 제단 앞에 놓는다.

레메즈: “네 손에” 있던 것이 이제 야훼 앞에 놓인다. 이 움직임은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을 상징한다.

드라쉬: 참된 감사에는 내려놓음이 포함된다. 예배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궁극적으로 야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

소드: 광주리는 야훼의 축복으로 채워진 인간의 수고를 나타낸다. 그것이 야훼 앞에 놓일 때 일상의 농사일이 거룩한 증언으로 변화된다.

너의 손 → 제사장 → 제단 → 야훼

야훼께서 먼저 인간의 손에 주신 것이 의도적으로 다시 그분 앞에 놓인다.

광주리의 물리적인 이동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감사에는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이 의도적으로 야훼 앞에 놓인다.

단지 ***“야훼께서 내 손에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묻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라.

Verse 5

“And you shall answer and say before YHWH your Elohim, ‘My father was a perishing Aramean, and he went down to Mitsrayim and sojourned there with few men. And there he became a nation, great, mighty, and numerous.’”

PaRDeS

Peshat: The firstfruit declaration now retells Yisrael’s beginnings: vulnerability, descent into Mitsrayim, smallness, and eventually growth into a great nation.

Remez: Before remembering greatness, Yisrael must remember **smallness**. Prosperity is safest when accompanied by memory of humble beginnings.

Drash: The farmer holding abundant produce must confess that his ancestors once possessed almost nothing. Abundance therefore becomes an occasion for humility rather than pride.

Sod: The movement from **few** → **great, weak** → **mighty, wandering** → **dwelling** reveals YHWH’s power to transform vulnerability into covenantal fruitfulness.

Energetic Flow

Wandering → **Mitsrayim** → **Few** → **Multiplication** → **Great Nation**

The basket of fruit becomes a doorway into collective memory.

Meaning

Torah connects thanksgiving with historical memory. The worshiper cannot properly appreciate what he has until he remembers where his people began.

“너는 또 네 Elohim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으며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페샤트: 첫 열매의 선언은 이제 Yisrael 의 시작을 회상한다. 연약함, Mitsrayim 으로 내려감, 소수였던 상태, 그리고 마침내 큰 민족으로 성장한 역사를 말한다.

레메즈: Yisrael 은 위대함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작았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 번영은 겸손했던 시작을 기억할 때 가장 안전하다.

드라쉬: 풍성한 소산을 들고 있는 농부는 자신의 조상들이 한때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풍요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이유가 된다.

소드: 소수 → 큰 민족, 연약함 → 강함, 방랑 → 정착이라는 움직임은 연약함을 연약적 풍성함으로 변화시키시는 야훼의 능력을 보여 준다.

방랑 → **Mitsrayim** → **소수** → **번성** → **큰 민족**

첫 열매의 광주리는 공동체의 기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Torah 는 감사를 역사적 기억과 연결한다.

예배자는 자신의 백성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기 전에는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올바르게
감사할 수 없다.

Mussar

Never allow where you are now to make you forget where you came from. Remembering small beginnings protects the heart from arrogance.

현재의 위치 때문에 자신의 시작을 잊지 말라.

작은 시작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보호한다.

Verse 6

“But the Mitsrites did evil to us, and afflicted us, and imposed hard labour on us.”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PaRDeS

Peshat: Yisrael’s confession remembers not only growth in Mitsrayim but also oppression, affliction, and forced labor.

페샤트: Yisrael 의 고백은 Mitsrayim 에서의 성장뿐 아니라 압제와 고통과 강제 노동도 기억한다.

Remez: A faithful memory does not erase painful chapters. Redemption becomes more precious when bondage is remembered.

레메즈: 신실한 기억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지우지 않는다. 속박을 기억할 때 구원은 더욱 귀하게 된다.

Drash: Torah does not teach Yisrael to build identity around suffering, but neither does it permit them to forget suffering. Their pain becomes part of the testimony of YHWH’s deliverance.

드라쉬: Torah 는 Yisrael 이 고난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세우도록 가르치지 않지만, 그 고난을 잊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의 고통은 야훼의 구원을 증언하는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Sod: Mitsrayim represents constriction—the place where life is pressed and restricted. Yet even constriction cannot cancel the covenantal purpose of YHWH.

소드: Mitsrayim 은 압박과 제한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조차 야훼의 언약적 목적을 무효화할 수 없다.

Energetic Flow

Growth → Opposition → Affliction → Hard Labor → Cry

성장 → 대적 → 고난 → 중노동 → 부르짖음

The story reaches its lowest point immediately before YHWH’s intervention.

이야기는 야훼께서 개입하시기 직전에 가장 낮은 지점에 이른다.

Meaning

The bikkurim confession teaches that thanksgiving does not require pretending that the journey was easy. Yisrael remembers both the fruitfulness and the affliction because both make YHWH's redemption visible.

Mussar

Do not remember hardship merely to relive pain. **Remember it in the light of what YHWH did afterward.** Then memory becomes testimony rather than bondage.

비쿠림의 고백은 감사하기 위해 지나온 길이 쉬웠던 것처럼 꾸밈 필요가 없음을 가르친다. Yisrael 은 풍성함과 고난을 모두 기억한다. 그 둘을 함께 기억할 때 야훼의 구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고통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어려움을 기억하지 말라. **그 후 야훼께서 행하신 일의 빛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은 속박이 아니라 증언이 된다.

Verse 7

“Then we cried out to YHWH Elohim of our fathers, and YHWH heard our voice and saw our affliction and our toil and our oppression.”

“우리가 우리 조상의 Elohim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PaRDeS

Peshat: Under oppression, Yisrael cried to YHWH. He heard their voice and saw their suffering, labor, and oppression.

페샤트: 압제 가운데 Yisrael 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과 수고와 압제를 보셨다.

Remez: The verse emphasizes both **hearing and seeing**. YHWH is neither deaf to the cry nor blind to the suffering of His people.

레메즈: 이 구절은 **들으심과 보심**을 함께 강조한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먹지 않으시며 그들의 고통에 눈멀지 않으신다.

Drash: The turning point begins not when Yisrael becomes strong enough to rescue itself, but when it **cries to YHWH**. Dependence becomes the doorway to deliverance.

드라쉬: 전환점은 Yisrael 이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강해졌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야훼께 부르짖었을 때** 시작되었다. 의존함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Sod: The cry rises from below, and divine attention responds from above. The oppressed people who seemed forgotten discover that their suffering has always remained before YHWH.

소드: 부르짖음은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는 야훼의 응답이 임한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백성은 자신의 고통이 결코 야훼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Energetic Flow

Affliction → Cry → YHWH Hears → YHWH Sees → Deliverance Begins

Human helplessness becomes prayer; prayer becomes the beginning of redemption.

Meaning

The firstfruit ceremony has now traveled backward from a basket filled with abundance to ancestors crying under oppression. This contrast is intentional. The person standing safely in the land must understand that the distance between **slavery and harvest** was crossed because YHWH heard the cry of His people.

Thus the fruit in the basket is more than agricultural produce. **It is evidence of answered prayer.**

Mussar

Sometimes we enjoy today what earlier generations prayed for in tears. **Do not enjoy the fruit while forgetting the prayers that preceded it.**

When circumstances become too heavy to carry, the Torah teaches a simple movement: **cry to YHWH**. He hears the voice and sees what lies behind it.

고난 → 부르짖음 → 야훼께서 들으심 → 야훼께서 보심 → 구원이 시작됨

인간의 무력함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구원의 시작이 된다.

첫 열매 의식은 이제 풍성한 광주리에서 출발하여 압제 가운데 부르짖던 조상들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조는 의도적이다.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노예 생활에서 수확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광주리 안의 열매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응답받은 기도의 증거이다.**

때로 우리는 이전 세대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오늘 누리고 있다. **그 열매를 누리면서 그보다 앞서 있었던 기도를 잊지 말라.**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질 때 Torah 는 단순한 방향을 가르친다. **야훼께 부르짖으라.** 그분은 음성을 들으시며 그 음성 뒤에 있는 고통까지 보신다.

Verse 8

“And YHWH brought us out of Mitsrayim with a strong hand and with an outstretched arm, with great fear and with signs and wonders.”

PaRDeS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Peshat: Yisrael confesses that its deliverance from Mitsrayim was accomplished by YHWH's power—His strong hand, outstretched arm, signs, and wonders.

Remez: The **strong hand** represents YHWH's irresistible power, while the **outstretched arm** pictures His active intervention on behalf of His people.

Drash: Yisrael was not commanded to remember merely that they escaped Mitsrayim, but **Who brought them out**. Redemption without remembrance can easily become self-congratulation.

Sod: The movement out of Mitsrayim represents release from *metzarim*—constrictions and limitations. YHWH brings His people from bondage toward covenantal freedom.

Energetic Flow

Cry → YHWH Hears → YHWH Acts → Bondage Breaks → Yisrael Comes Out

Verse 7 said **YHWH heard**; verse 8 shows that **YHWH acted**. Divine compassion becomes divine intervention.

Meaning

Yisrael's national existence begins with deliverance. They did not free themselves and then seek YHWH; YHWH rescued them and formed them into His covenant people.

Mussar

When remembering deliverance, do not merely say, **"I survived."** Ask instead, **"Where was YHWH's hand in bringing me through?"**

페샤트: Yisrael 은 Mitsrayim 으로부터의 구원이 야훼의 능력, 곧 강한 손과 편 팔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

레메즈: 강한 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야훼의 능력을 나타내며, 편 팔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 준다.

드라쉬: Yisrael 은 단순히 Mitsrayim 에서 탈출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도록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이끌어 내셨는지 기억해야 했다. 구원에서 그 구원자를 잊으면 쉽게 자기 자랑으로 변할 수 있다.

소드: Mitsrayim 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metzarim*, 곧 압박과 제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낸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박에서 언약적 자유로 이끄신다.

부르짖음 → 야훼께서 들으심 → 야훼께서 행동하심 → 속박이 깨짐 → Yisrael 이 나옴

Verse 7 에서는 **야훼께서 들으셨고**, 8 절에서는 **야훼께서 행동하신다**. 야훼의 긍휼이 실제적인 개입으로 나타난다.

Yisrael 의 민족적 존재는 구원으로 시작된다.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얻은 후 야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다.

구원을 기억할 때 단순히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나를

이끌어 내신 야훼의 손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물으라.

Verse 9

“And He brought us to this place and has given us
thi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이 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PaRDeS

Peshat: YHWH did not merely bring Yisrael **out of**
Mitsrayim; He brought them **into** the promised land and
gave it to them.

페샤트: 야훼께서는 Yisrael 을 단순히
Mitsrayim 에서 **이끌어 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Remez: Redemption has two movements: **out from**
bondage and into purpose. Freedom is incomplete if
one leaves slavery but never enters the place YHWH
intends.

레메즈: 구원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

속박에서 나오는 것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야훼께서
의도하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자유는
완성되지 않는다.

Drash: YHWH’s purpose was greater than escape. He
delivered Yisrael so they could become a covenant
people living according to Torah in the land He
provided.

드라쉬: 야훼의 목적은 단순한 탈출보다 더 컸다.
그분은 Yisrael 을 구원하여 자신이 주신 땅에서
Torah 에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

Sod: “**This place**” represents arrival—the transition
from promise remembered to promise inhabited.
Redemption seeks a dwelling place where covenant life
can bear fruit.

소드: ***“이 곳”***은 도착을 나타낸다. 기억하던
약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약속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구원은 언약의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처를 향한다.

Energetic Flow

Out of Mitsrayim → Through the Wilderness → Into
This Place → Land Given → Fruitfulness

Mitsrayim 에서 나옴 → 광야를 통과함 → 이 곳에
들어옴 → 땅을 받음 → 풍성한 열매

YHWH brings out in order to bring in.

야훼께서는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먼저 나오게
하신다.

Meaning

The confession now reaches the present moment. The worshiper stands physically in the land his ancestors were promised. The words **“this place”** make covenant history tangible.

Mussar

Do not define redemption only by what YHWH has brought you **out of**. Ask what He is bringing you **into** and how you should live there faithfully.

이제 고백은 현재의 순간에 도달한다. 예배자는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바로 그 땅에 실제로 서 있다. ***“이 곳”***이라는 표현은 언약의 역사를 눈앞의 현실로 만든다.

구원을 야훼께서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는가로만 정의하지 말라. 그분이 무엇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라.

Verse 10

“And now, see, I have brought the first-fruits of the land which You, O YHWH, have given me.” Then you shall place it before YHWH your Elohim, and bow down before YHWH your Elohim.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맡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Elohim 야훼 앞에 두고 네 Elohim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PaRDeS

Peshat: After recounting Yisrael’s history, the worshiper presents the firstfruits before YHWH and bows before Him.

페샤트: Yisrael의 역사를 고백한 후 예배자는 첫 열매를 야훼 앞에 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한다.

Remez: The phrase **“And now”** connects ancient redemption with present gratitude. Because YHWH acted **then**, the worshiper responds **now**.

레메즈: ***“이제”***라는 말은 과거의 구원을 현재의 감사와 연결한다. 야훼께서 **그때** 행하셨기 때문에 예배자는 **지금** 응답한다.

Drash: The firstfruit is small compared with the entire land, yet it represents the whole blessing. Giving the first portion acknowledges YHWH’s ownership of everything.

드라쉬: 첫 열매는 온 땅의 소산에 비하면 작지만 전체 축복을 대표한다. 첫 부분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Sod: The confession reaches its destination in **bowing down**. Memory becomes gratitude; gratitude becomes offering; offering becomes worship.

소드: 고백은 마침내 **경배함**에 도달한다. 기억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예물이 되며, 예물이 예배가 된다.

Energetic Flow

**Remember → Confess → Bring → Place Before
YHWH → Bow Down**

The basket began in the field but ends before YHWH.
The harvest becomes worship.

Meaning

The worshiper says something profound: **“You have given me.”** He worked the soil, planted, waited, harvested, and carried the fruit—yet after all his labor he still calls the produce YHWH’s gift. Torah does not deny human effort; it teaches us to recognize the Source behind the fruit of that effort.

Mussar

Spiritual gratitude says, **“I worked for this, but I did not create the conditions that made it possible.”**
Effort and gratitude are not enemies.

**기억함 → 고백함 → 가져옴 → 야훼 앞에 둠 →
경배함**

광주리는 밭에서 시작했지만 야훼 앞에서 그
여정을 마친다. **수확이 예배가 된다.**

예배자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한다. **“주께서 내게 주셨나이다.”** 그는 땅을 갈고, 심고, 기다리고, 수확하고, 열매를 직접 가져왔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후에도 그것을 야훼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한다. Torah 는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노력의 열매 뒤에 계신 근원을 인정하도록 가르친다.

영적 감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 수고했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건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다.”** 수고와 감사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Verse 11

“And you shall rejoice in all the good which YHWH your Elohim has given to you and your house, you and the Lēwite and the stranger who is in your midst.”

PaRDeS

Peshat: Yisrael is commanded to rejoice in YHWH’s goodness together with the Lewite and the stranger living among them.

Remez: Genuine blessing expands the circle of joy. YHWH’s goodness is not meant to terminate at the household boundary.

“네 Elohim 야훼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페샤트: Yisrael 은 야훼께서 주신 모든 복을 레위인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레메즈: 진정한 축복은 기쁨의 범위를 넓힌다. 야훼의 선하심은 자기 집 안에서만 끝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Drash: Torah measures gratitude partly by generosity. If receiving blessing causes us to close our hands to others, we have misunderstood the purpose of blessing.

Sod: Sacred joy multiplies through sharing. The individual receives from YHWH, but the blessing reaches completion when others are brought into the rejoicing.

Energetic Flow

YHWH Gives → Household Receives → Gratitude Rises → Others Are Included → Joy Multiplies

The movement of bikkurim does not end at the altar.
Worship flows outward into shared joy.

Meaning

This verse adds an important dimension to biblical gratitude: **rejoicing is commanded**. Torah does not teach that holiness requires suspicion toward material blessing. When YHWH gives what is good, His people are permitted—and commanded—to recognize it, enjoy it, and share that joy with others.

Mussar

Do not merely possess YHWH's goodness—learn to rejoice in it. And do not rejoice alone. Mature gratitude asks who else can be brought to the table.

드라쉬: Torah 는 감사를 어느 정도 관대함으로 측정한다. 축복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닫는다면 우리는 축복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소드: 거룩한 기쁨은 나눔을 통해 증가한다. 개인이 야훼께 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에 참여할 때 축복의 목적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난다.

야훼께서 주심 → 가정이 받음 → 감사가 일어남 → 다른 이들을 포함함 → 기쁨이 증가함

비쿠림의 움직임은 제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배는 밖으로 흘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된다.

이 구절은 성경적 감사에 중요한 차원을 더한다.
기뻐하는 것이 명령된다. Torah 는 거룩함이 물질적 축복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분의 백성은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도록 명령받는다.

야훼의 선하심을 단지 소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혼자 기뻐하지 말라. 성숙한 감사는 누가 더 이 식탁에 함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Verse 12

“When you have finished tithing all the tithe of your increase in the third year, which is the year of tithing, and have given it to the Lēwite, to the stranger, to the fatherless, and to the widow, and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they have eaten within your gates and have been satisfied,”

PaRDeS

Peshat: In the third year, the tithe is designated for the Lewite, stranger, orphan, and widow so that they may eat within Yisrael’s communities and be satisfied.

Remez: Verse 11 commanded shared rejoicing; verse 12 gives that principle concrete economic expression. **Joy becomes provision.**

Drash: Torah does not leave concern for the vulnerable entirely to spontaneous generosity. It builds care for them into the covenant community’s regular pattern of life.

Sod: Blessing moves in a circle: YHWH gives to the landowner, the landowner gives to the vulnerable, and the community becomes a place where YHWH’s provision is made visible.

Energetic Flow

YHWH Gives Increase → Tithe Is Separated → Vulnerable Are Remembered → They Eat → They Are Satisfied

Notice the destination: not merely that something is given, but that people “eat and are satisfied.”

Meaning

Devarim 26 now moves naturally from **firstfruits to responsibility**. The same person who says, “YHWH gave me this land and this harvest,” must recognize that some of what YHWH placed in his hands was intended for others.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읍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페샤트: 셋째 해에는 십일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Yisrael 의 공동체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한다.

레메즈: 11 절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했고, 12 절은 그 원리를 구체적인 경제적 행동으로 나타낸다. **기쁨이 공급으로 변화된다.**

드라쉬: Torah 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단지 자발적인 선행에만 맡기지 않는다. 그들을 돌보는 일을 연약 공동체의 정기적인 삶의 구조 안에 포함시킨다.

소드: 축복은 순환한다. 야훼께서 땅의 소유자에게 주시고, 소유자는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공동체는 야훼의 공급하심이 눈에 보이는 장소가 된다.

야훼께서 소산을 주심 → 십일조를 구별함 → 연약한 자들을 기억함 → 그들이 먹음 → 배부르게 됨

목적에 주목하라. 단지 무엇인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다.

Devarim 26 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첫 열매에서 **책임으로** 이동한다. “야훼께서 이 땅과 수확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야훼께서

Thus biblical stewardship asks not only, “**How much have I received?**” but also, “**Who should be sustained through what YHWH has entrusted to me?**”

Mussar

Blessing creates responsibility. The Torah repeatedly turns the eyes of the prosperous toward those who can easily be overlooked—the Lewite, stranger, orphan, and widow.

The highest evidence that we understand “**YHWH has given me**” may be our willingness to say, “**Therefore I can give to another.**”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은 단지 ***“나는 얼마나 받았는가?”**라고 묻지 않는다. 또한 ***“야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통해 누가 공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축복은 책임을 낳는다. Torah 는 번영하는 사람의 시선을 쉽게 잊힐 수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계속 돌리게 한다.

우리가 ***“야훼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 있다.

Verse 13

“then you shall say before YHWH your Elohim, ‘I have put away the set-apart portion from my house, and also have given it to the Lēwite, and to the stranger, and to the fatherless, and to the widow, according to all Your command which You have commanded me. I have not transgressed Your commands, nor have I forgotten.’”

“그리 할 때에 네 Elohim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PaRDeS

Peshat: After distributing the tithe, the Yisraelite declares before YHWH that the set-apart portion has been removed from his house and given to those commanded by Torah.

페샤트: 십일조를 나눈 후 Yisrael 사람은 성별된 것을 자기 집에서 내어 Torah 가 명령한 사람들에게 주었음을 야훼 앞에서 선언한다.

Remez: The striking phrase is “**nor have I forgotten.**” Torah treats forgetfulness as spiritually serious because what the heart ceases to remember, the hands eventually cease to practice.

레메즈: 특별히 주목할 표현은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이다. Torah 는 망각을 영적으로 심각하게 다룬다. 마음이 기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손으로도 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Drash: Obedience is measured not merely by religious intention but by whether YHWH's command actually reaches the Lewite, stranger, orphan, and widow.

Sod: The worshiper removes what is holy from his private possession so that holiness may circulate throughout the covenant community.

Energetic Flow

Receive → Remember → Separate → Give → Declare Faithfulness

“I have not forgotten” connects memory with obedience.

Meaning

Devarim repeatedly warns Yisrael against forgetting YHWH after entering prosperity. Here remembering becomes very practical. To remember YHWH means remembering what He commanded concerning the needs of others.

Mussar

Spiritual forgetfulness often appears first as neglected obedience. Keep YHWH's instructions before you until remembrance becomes action.

드라쉬: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도로 측정되지 않는다. 야훼의 명령이 실제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도달했는가로 나타난다.

소드: 예배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개인적인 소유에서 내어놓음으로써 거룩함이 언약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게 한다.

받음 → 기억함 → 구별함 → 나눔 → 신실함을 고백함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은 기억과 순종을 연결한다.

Devarim 은 Yisrael 이 번영에 들어간 후 야훼를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경고한다. 여기에서 기억은 매우 실제적인 행동이 된다. 야훼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하여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영적인 망각은 종종 순종을 소홀히 하는 모습으로 먼저 나타난다. 야훼의 가르침을 계속 마음 앞에 두어 기억이 행동이 되게 하라.

Verse 14

“I have not eaten any of it in my mourning, nor have I removed any of it for any unclean use, nor given any of it for the dead. I have obeyed the voice of YHWH my Elohim, I have done according to all that You have commanded me.”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Elohim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PaRDeS

Peshat: The worshiper declares that the sacred tithe has not been misused. He has handled it according to YHWH's instructions and obeyed His voice.

Remez: “**I have obeyed the voice**” shows that Torah obedience is not merel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behind the commandment stands the voice of YHWH.

Drash: Holiness requires boundaries. Good intentions cannot transform something YHWH has designated for one purpose into something acceptable for another purpose.

Sod: Hearing and doing are united. The divine voice enters the ear, descends into the heart, and becomes visible through obedient action.

Energetic Flow

YHWH Speaks → Yisrael Hears → Sacred Boundary Is Honored → Command Is Performed

Meaning

The confession progresses from “**I have not forgotten**” in verse 13 to “**I have obeyed**” in verse 14. Biblical remembrance reaches completion in obedience.

To remember Torah but refuse to practice it is incomplete remembrance.

Mussar

Ask not only, “**Do I know what YHWH said?**” but “**Has what YHWH said changed what I do?**”

페샷트: 예배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십일조를 잘못 사용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 그는 그것을 야훼의 지시에 따라 다루었으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였다.

레메즈: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였다”***는 표현은 Torah 의 순종이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님을 보여 준다. 계명 뒤에는 야훼의 음성이 있다.

드라쉬: 거룩함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야훼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것을 좋은 의도만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소드: 들음과 행함은 하나로 연결된다. 야훼의 음성이 귀로 들어와 마음에 내려가고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 눈에 보이게 된다.

야훼께서 말씀하심 → Yisrael 이 들음 → 거룩한 경계를 지킴 → 명령을 행함

고백은 13 절의 ***“잊지 않았습니다”***에서 14 절의 ***“순종하였습니다”***로 발전한다. 성경적인 기억은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

Torah 를 기억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억이 아니다.

단지 ***“나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지 말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행동을 변화시켰는가?”***라고 물으라.

“Look from Your set-apart dwelling place, from the heavens, and bless Your people Yisrael and the land which You have given us, as You swore to our father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PaRDeS

Peshat: Having faithfully completed the tithe obligation, the worshiper asks YHWH to look from His holy dwelling and bless Yisrael and the land.

Remez: Earlier YHWH “saw our affliction” in Mitsrayim (26:7). Now Yisrael asks Him to “look” upon His people in the land. The One who saw them in suffering is asked to see them in covenant faithfulness.

Drash: The blessing sought is not merely individual prosperity. The prayer embraces **the people and the land**. Covenant blessing has a communal dimension.

Sod: Heaven and earth meet in covenant: YHWH looks from His holy dwelling while His people faithfully order life in the land according to His Torah.

Energetic Flow

Obedience Below → Prayer Rises → YHWH Looks from Heaven → Blessing Descends → People and Land Flourish

Meaning

The worshiper who began with a basket of firstfruits now prays for the entire nation. Gratitude has enlarged his vision. He began with “**what YHWH gave me**” and ends by asking YHWH to bless “**Your people Yisrael.**”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주의 백성 Yisrael 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페샤트: 십일조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한 후에 배자는 야훼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굽어보시고 Yisrael 과 그 땅에 복을 주시기를 구한다.

레메즈: 앞서 야훼께서는 Mitsrayim 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셨다**”(26:7). 이제 Yisrael 은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굽어보아**” 주시기를 구한다. 고난 중에 그들을 보셨던 분께 이제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아 달라고 요청한다.

드라쉬: 구하는 축복은 단순한 개인적 번영이 아니다. 기도는 **백성과 땅**을 함께 품는다. 언약의 축복에는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

소드: 언약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 야훼께서는 거룩한 처소에서 굽어보시고 그분의 백성은 땅에서 Torah 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간다.

아래에서의 순종 → 기도가 올라감 →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심 → 축복이 내려옴 → 백성과 땅이 번성함

첫 열매의 광주리로 시작한 예배자는 이제 온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감사가 그의 시야를 넓힌 것이다. 그는 “*야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야훼께 “*주의 백성 Yisrael*”을 축복해 달라고 구한다.

Mussar

Mature prayer grows beyond **“Bless me.”** It learns to pray, **“Bless Your people.”** Personal gratitude should enlarge our concern for the entire community.

성숙한 기도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를 넘어선다. ***“주의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개인적인 감사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관심을 넓혀야 한다.

Verse 16

“Today YHWH your Elohim is commanding you to do these laws and right-rulings. And you shall guard and do the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being.”

“오늘 네 Elohim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PaRDeS

Peshat: Moshe calls Yisrael to carefully observe YHWH’s laws and judgments with all their heart and being.

페샤트: Moshe 는 Yisrael 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야훼의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지켜 행하라고 명한다.

Remez: The word **“today”** makes Torah perpetually immediate. Covenant obedience must never become merely the memory of what previous generations practiced.

레메즈: ***“오늘”***이라는 말은 Torah 를 언제나 현재적인 것으로 만든다. 언약의 순종은 이전 세대가 행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Drash: Torah demands both **guarding and doing**. Guarding preserves YHWH’s instruction; doing embodies it in daily life.

드라쉬: Torah 는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요구한다. 지키는 것은 야훼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행하는 것은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 구현한다.

Sod: **Heart and being** describe an integrated life. YHWH seeks neither external obedience without inward devotion nor inward devotion without action.

소드: **마음과 뜻**은 통합된 삶을 나타낸다. 야훼께서는 내적인 헌신 없는 외적인 순종도, 행동 없는 내적인 헌신도 원하지 않으신다.

Energetic Flow

YHWH Commands Today → Heart Receives → Instruction Is Guarded → Hands Perform → Covenant Becomes Life

야훼께서 오늘 명령하심 → 마음이 받아들임 → 가르침을 지킴 → 손으로 행함 → 언약이 삶이 됨

Meaning

After detailed commandments concerning firstfruits, tithes, worship, and care for the vulnerable, Moshe returns to the foundation: **wholehearted obedience**. Torah must not remain a collection of isolated commandments. Together they shape a life directed toward YHWH.

Mussar

Do not live on yesterday's obedience. Torah speaks **"today."** Each day asks again whether the heart, mind, and actions are aligned with YHWH.

첫 열매와 십일조, 예배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계명들을 설명한 후 Moshe 는 그 모든 것의 기초인 **온 마음의 순종**으로 돌아온다.

Torah 는 서로 분리된 계명들의 모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계명은 함께 야훼를 향하는 삶을 형성한다.

어제의 순종에 의지하여 살지 말라. Torah 는 **"오늘"** 말한다. 매일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야훼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Verse 17

"You have today caused YHWH to proclaim to be your Elohim, and to walk in His ways and guard His laws, and His commands, and His right-rulings, and to obey His voice."

"네가 오늘 야훼를 네 Elohim 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인하였고"

PaRDeS

Peshat: Yisrael formally affirms YHWH as their Elohim and commits to walking in His ways, keeping His commandments, and listening to His voice.

페샤트: Yisrael 은 야훼를 자신들의 Elohim 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을 확인한다.

Remez: The covenant is described not merely as believing something about YHWH but as **walking in His ways**. Relationship becomes a manner of life.

레메즈: 언약은 단순히 야훼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믿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된다. 관계가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Drash: To declare YHWH as Elohim means accepting His authority over practical life. Confession and obedience cannot be separated.

드라쉬: 야훼를 Elohim 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백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

Sod: The language resembles a covenantal exchange: Yisrael declares YHWH to be their Elohim, and in the following verse YHWH declares Yisrael to be His treasured people.

소드: 이 언어는 언약적 상호 선언을 보여 준다. Yisrael 은 야훼를 자신들의 Elohim 으로 선언하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야훼께서는 Yisrael 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언하신다.

Energetic Flow

YHWH Our Elohim → Walk His Ways → Guard His Torah → Hear His Voice → Live the Covenant

Meaning

The chapter has moved from **fruit to covenant**. First Yisrael recognizes, “YHWH gave us the land.” Now they confess something deeper: **“YHWH is our Elohim, therefore we will walk in His ways.”**

The gift of the land therefore points beyond itself. YHWH did not merely desire a people who possessed His blessings; He desired a people who **walked with Him in covenant faithfulness**.

Mussar

The question is not only whether YHWH is the Elohim you confess, but whether His ways are the path you walk. Covenant confession becomes authentic when it shapes daily conduct.

야훼는 우리의 Elohim → 그분의 길을 걸음 → 그분의 Torah 를 지킴 → 그분의 음성을 들음 → 언약을 살아냄

이 장은 **열매에서 언약으로** 이동했다. 처음에 Yisrael 은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인정했다. 이제 그들은 더 깊은 것을 고백한다. **“야훼는 우리의 Elohim 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이라는 선물은 그 자체를 넘어 더 깊은 목적을 가리킨다. 야훼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축복을 소유하는 백성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걷는 백성**을 원하셨다.

중요한 것은 야훼를 나의 Elohim 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길이 내가 걷는 길인가 하는 것이다.** 언약의 고백은 일상의 행동을 형성할 때 진실하게 드러난다.

Verse 18

“And YHWH has caused you to proclaim today to be His people, a treasured possession, as He has spoken to you, and to guard all His commands,”

PaRDeS

“야훼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으며”

Peshat: As Yisrael has declared YHWH to be their Elohim, YHWH declares Yisrael to be His **treasured people**, calling them to keep His commandments.

Remez: The expression “**treasured possession**” recalls the covenant at Sinai: *segullah* (סְגֻלָּה), something specially valued and set apart.

Drash: Yisrael’s special status is not merely privilege; it carries responsibility. To belong uniquely to YHWH means living distinctly according to His Torah.

Sod: Covenant creates mutual belonging: **YHWH is Yisrael’s Elohim, and Yisrael is YHWH’s treasured possession.**

Energetic Flow

**Yisrael Chooses YHWH → YHWH Claims Yisrael
→ Treasured Possession → Covenant Obedience**

Meaning

Verse 17 declared Yisrael’s side of the covenant; verse 18 reveals YHWH’s corresponding declaration. Covenant is therefore not merely obligation—it is **belonging**.

Mussar

Being treasured by YHWH should produce faithfulness to YHWH. Privilege without responsibility misunderstands covenant identity.

페샤트: Yisrael 이 야훼를 자신들의 Elohim 으로 선언한 것처럼, 야훼께서도 Yisrael 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언하시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도록 부르신다.

레메즈: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표현은 Sinai 의 언약을 떠올리게 한다. *segullah*(סְגֻלָּה)는 특별히 귀하게 여기며 구별한 소유를 뜻한다.

드라쉬: Yisrael 의 특별한 지위는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다. 특별히 야훼께 속한다는 것은 그분의 Torah 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소드: 언약은 상호적인 소속을 만든다. **야훼는 Yisrael 의 Elohim 이시며, Yisrael 은 야훼의 보배로운 소유이다.**

Yisrael 이 야훼를 선택함 → 야훼께서 Yisrael 을 자신의 것으로 선언하심 → 보배로운 소유 → 언약적 순종

17 절이 Yisrael 편에서의 언약적 선언이었다면, 18 절은 그에 응답하시는 야훼의 선언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언약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소속됨**이다.

야훼께 보배롭게 여김받는 것은 야훼를 향한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책임 없는 특권은 언약적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so as to set you high above all nations which He has made, for a praise, and for a name, and for esteem, and for you to be a set-apart people to YHWH your Elohim, as He has spoken.”

PaRDeS

Peshat: YHWH promises to distinguish Yisrael among the nations for praise, name, and honor, making them a people set apart to Him.

Remez: Yisrael is elevated not merely to stand **above** the nations, but to stand **apart for YHWH**. The emphasis is holiness rather than superiority.

Drash: Yisrael’s honor is intended to reflect the character of the Elohim to whom they belong. Their distinction carries the responsibility of representing YHWH faithfully.

Sod: The chapter that began with the **fruit of the land** ends with the **fruit of covenant identity**—a people made holy to YHWH.

Energetic Flow

Treasured People → Set Apart → Faithful
Obedience → YHWH’s Name Honored

Meaning

Devarim 26 begins with “**the land YHWH is giving you**” and ends with “**a set-apart people to YHWH**.” The greater gift is therefore not merely possessing the land, but becoming the kind of people YHWH intended to dwell within it.

Mussar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Elohim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페샤트: 야훼께서는 Yisrael 을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며 자신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신다.

레메즈: Yisrael 은 단순히 민족들 위에 서기 위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위하여 구별되기 위해** 높여진다. 강조점은 우월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드라쉬: Yisrael 의 명예는 그들이 속한 Elohim 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구별됨에는 야훼를 신실하게 나타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소드: 땅의 열매로 시작했던 이 장은 **언약적 정체성의 열매**, 곧 야훼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끝난다.

보배로운 백성 → 구별됨 → 신실한 순종 →
야훼의 이름이 높임받음

Devarim 26 장은 ***“야훼께서 네게 주시는 땅”***으로 시작하여 ***“야훼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더 큰 선물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야훼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Do not seek distinction merely to be admired. Seek holiness so that YHWH may be honored through your life.

단지 사람들에게 높이받기 위해 구별됨을 추구하지 말라. 네 삶을 통해 야훼께서 영광받으시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라.